



1970년대 ‘증상으로서의 대중소설’과 최인호 문학 연구

A study on a popular novels as a symptom in the 1970s and Choi, In-ho
Literature

저자 沈在昱
(Authors) Sim, Jae-uk

출처 [국어국문학 , \(171\)](#), 2015.6, 573-603 (31 pages)
(Source) [The Korean Language and Literature , \(171\)](#), 2015.6, 573-603
 (31 pages)

발행처 [국어국문학회](#)
(Publisher) The Society of Korean Langage and Literature

URL <http://www.dbpia.co.kr/Article/NODE06383314>

APA Style 沈在昱 (2015). 1970년대 ‘증상으로서의 대중소설’과 최인호 문학
 연구. 국어국문학, (171), 573-603.

이용정보 고려대학교
(Accessed) 163.152.3.39
 2016/04/29 15:33 (KST)

저작권 안내

DBpia에서 제공되는 모든 저작물의 저작권은 원저작자에게 있으며, 누리미디어는 각 저작물의 내용을 보증하거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이 자료를 원저작자와의 협의 없이 무단게재 할 경우, 저작권법 및 관련법령에 따라 민, 형사상의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Copyright Information

The copyright of all works provided by DBpia belongs to the original author(s).
Nurimedia is not responsible for contents of each work. Nor does it guarantee the contents.

You might take civil and criminal liabilities according to copyright and other relevant laws if you publish the contents without consultation with the original author(s).

1970년대 ‘증상으로서의 대중소설’과 최인호 문학 연구

沈在昱*

차례

1. 서론
2. 초기 단편소설에 나타난 주체의 저항과 분열로의 귀결
3. 1970년대 대중소설이라는 증상과 대중의식
4. 결론

〈국문초록〉

본고는 1960년대에서 70년대로 이행하는 최인호의 문학적 변화를 기준으로 초기 단편소설과 대중소설의 특징을 정리하고, 증상 개념을 중심으로 1970년대에 나타난 대중소설의 차별적 가치를 밝히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최인호의 초기 단편소설의 인물들은 타락한 세계와 대결하려는 시도를 지속적으로 보여준다. 하지만 이들의 저항은 번번이 실패하고, 오히려 그 과정에서 부조리한 세계에 포섭되어 타락하고 만다. 최인호의 초기 텍스트들의 진정한 의미는 ‘타락한 세계에 맞서는 과정에서 저항과 매혹으로 분열되어버린 주체의 발견’이라고 할 수 있다. 타락한 세계에 대한 저항과 순응의 태도가 극단적으로 혼재되어 나타나는 분열된 주체는 최인호의 문학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이다. 뿐만 아니라 인물들이 자신의 분열된 양상을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는 ‘불가피함’으로 간주하고 ‘연민’의 감정을 통해 자기세계로 확립한다는 사실은 이후 최인호 문학의 전개에 있어 새로운 출발점이 된다.

* 江原大學校 國語國文學科 講師

1972년을 기점으로 최인호의 인물들은 타락한 세계에 직접적으로 맞서려는 시도를 대신해 분열된 욕망을 적극적으로 향유하는 병적 상태를 보인다. 주체가 자기세계의 타락한 일면에 눈 감을 수 있는 것은 살아남기 위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인데, 그 불가피함에 대한 연민이 어느 순간 역전된 쾌락을 주게 된 것이다. 『별들의 고향』의 문오를 비롯한 인물들은 기만적인 태도로 욕망을 충족시키면서 타락한 세계를 내면화한다. 미술적 재능에 대한 회의 때문에 무기력했던 문오는 근본적인 노력 대신 경아와의 연애라는 손쉬운 방법으로 도착적인 쾌락에 탐닉한다. 이러한 경험은 문오로 하여금 경아의 시신을 떠맡게 만드는 근원적인 죄의식이 된다. 경아 또한 남성들을 통해 속물적 욕망을 채우지만 스스로를 부도덕하고 죄 많은 여자로 간주하며 자책하기도 한다. 표면적으로 그녀의 죄의식은 남성 중심의 상징 질서가 만들어낸 환상처럼 보이지만 그 근저에는 자신의 불행을 불완전한 남성들에게 떠넘긴 채 술과 미신, 안이한 낙관으로 도피했다는 반성이 자리한다.

최인호의 70년대 대중소설 속 인물들은 모순적일만큼 양가적인 태도를 보이며 현실에 대한 리얼리티를 보여주지 못하는데, 오히려 당대 대중들은 이러한 대중소설의 특징과 공명하며 ‘증상’을 완성한다. 실제로 당시의 청년 주체는 지배이데올로기의 강압을 조롱하고 자유와 해방을 추구하는 저항적 주체이기도 했지만, 동시에 소비문화에 잠식된 쾌락적 주체이기도 했다. 최인호의 초기 단편소설들이 발견한 분열된 주체의 모습은 자본주의적 근대에 대해 매혹과 거부감을 양가적으로 느꼈던 대중과 만나면서 기만적 쾌락과 저항적 죄의식을 동시에 담아내는 텍스트로 나타난 것이다. 최인호의 1970년대 대중소설은 현실을 피상적이고 왜곡된 양상으로 재현하면서도 대중의 무의식적 욕망을 드러내 주는 증상으로서 차별적 가치를 갖는다.

핵심어 대중소설, 타락한 세계, 분열된 주체, 증상, 도착, 기만, 죄의식, 양가성

1. 서론

본고는 1960년대에서 70년대로 이행하는 최인호의 문학적 변화를 기준으로 초기 단편소설과 대중소설의 특징을 정리하고, 증상 개념을 중심으로 1970년대에 나타난 대중소설의 차별적 가치를 밝히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최인호는 현실 비판적인 단편소설과 통속적 대중소설 사이에서 엇갈린 평가를 받아온 작가이다. 최인호는 『견습환자』(1967)와 『2와 1/2』(1967)로 등단한 이후, 『술꾼』(1970), 『타인의 방』(1971) 등의 단편소설을 잇달아 발표하며 문단의 주목을 받았다. 이어서 그는 1972년부터 관능적인 퇴폐미를 강조한 연작소설 『황진이 1,2』(1972)나 가학적이고 자조적인 『전람회의 그림 1,2』(1972), 현실정치에 대한 직접적 시선을 보여주는 중편소설 『무서운 복수』(1972)를 비롯해 『별들의 고향』(1973), 『바보들의 행진』(1974), 『내 마음의 풍차』(1974)와 같은 신문연재 장편소설 등을 쏟아내며 다양한 문학적 시도를 보여준다. 그리고 점차 장편소설에 창작의 무게를 두기 시작하면서 리얼리즘과 모더니즘이 주도하던 당대 문단으로부터 배제되었고, 대중소설 작가라는 꼬리표를 달게 된다.

최근의 연구 성과를 중심으로 살펴보면, 장편소설뿐만 아니라 단편소설에 대해서도 여전히 논쟁적임을 알 수 있다. 초기 단편소설의 경우, 부조리한 현실을 직·간접적으로 비판하는 작가의식과 문학적 기법에 주목하는 연구¹⁾와 작품 속 인물들의 저항의 실패마저도 현대 자본주의 사회의 구조적 모순을 폭로하는 의미로 해석하는 연구들이 있다.²⁾ 한편, 지배이데올로기에 대한 순응을 현실도피나 보수적 정치성으로 파악하는 연구도 있다.³⁾ 하지만 이러한 상반된 평가들은 인물의 저항적 태도 혹은 순응적 태도의 한 측면을 다루지 않거나 텍스트를 넘어서는 추측이 나타나는 한계를 보인다. 따라서 최인호의 초기 단편소설을 이해하는 데 있어 인물들의 저항과 그 실패의 양

1) 김인경, 『최인호 소설에 나타난 모더니즘과 저항의 서사』, 『국제어문』 39집, 국제어문학회, 2007; 노대원, 『최인호 초기 단편소설의 카니발적 특성 연구』, 서강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9.

2) 남진우, 『현대의 신화-최인호 문학의 기원』 작품해설, 『최인호 중단편 소설전집 1』, 문학동네, 2002; 이평전, 『현대소설에 나타난 도시 공간의 위상학 연구-최인호 소설을 중심으로』, 『한국문학이론과 비평』 제56집, 한국문학이론과 비평학회, 2002.

3) 김진기, 『최인호 소설의 정치성 연구』, 『어문론집』 61호, 중앙어문학회, 2015.

상이 어떤 의미를 내포하는지를 텍스트에 근거해 균형감 있게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장편소설의 경우도 장르적 문제뿐만 아니라 인물들의 태도와 관련한 이데올로기적 효과를 중심으로 비판의 편차가 크게 나타난다.⁴⁾ 특히 최근 논의에서 인물들의 현실 순응적인 태도와 관련된 죄의식의 의미를 고찰하고 있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⁵⁾ 따라서 최인호 초기 문학 연구에서는 부조리한 세계에 대한 주체의 태도가 단편과 장편에서 각각 어떻게 형상화되고 있는지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한수영은 최인호 문학 연구에서 단편과 장편을 총체적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음을 지적한 바 있는데,⁶⁾ 본고에서는 ‘타락한 세계에 대한 주체의 태도’를 하나의 일관된 논점으

4) 대표적으로 안낙일과 김성환의 평가를 대별할 수 있겠다. 안낙일은 “『별들의 고향』은 급격한 산업화, 도시화로부터 초래된 윤리적 관습의 과도기를 살아가던 당대 대중들의 무의식에 부합한 소설이다. (...) 70년대 대중성의 미숙함과 시대 현실에 대한 대중적 감수성의 타락과 같은 병적 징후와 타협함으로써 오히려 70년대 대중문학의 시작을 통속 문학으로 변질시켰다는 부정적 측면이 두드러져 보인다. 이는 결과적으로 한 시대의 건강한 가치관을 훼손함으로써 모순으로 가득했던 당대 사회 체제에 독자대중들을 순응케 하고 위안을 주는 심각한 정신적, 문화적 상처를 남겼다고 할 수 있다.”(안낙일, 『1970년대 대중소설의 두 가지 서사 전략』, 『한국문학이론과 비평』, 한국문학이론과 비평학회, 2000, 297쪽)는 혹독한 비판을 내린 반면, 김성환은 “최인호는 가출과 불륜 등 전형적인 대중소설의 서사를 구성하면서도 그 속에 내재한 대중적 욕망의 한계에 주목하고 이를 넘어서는 새로운 주체를 형상화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 이들은 한편으로는 순응적이고 퇴폐적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사회 질서를 전복할 힘을 보여주기도 한다.”(김성환, 『1970년대 대중소설에 나타난 욕망 구조 연구』, 서울대 박사학위논문, 2009, 180쪽)라고 말하며 최인호 대중소설의 가치를 옹호한다.

5) 김지혜, 『1970년대 대중소설의 죄의식 연구』, 『현대소설연구』 52호, 한국현대소설학회, 2013; 박필현, 『“꿈의 70년대”의 청춘, 그 애도와 위안의 서사-최인호의 『별들의 고향』을 중심으로』, 『현대소설연구』 56호, 한국현대소설학회, 2014.

6) 구체적으로 논의를 전개하지는 않았지만 한수영은 “장단편 사이에 일정한 차이가 존재한다면, 그것은 단순히 장르나 양식상의 차이가 아니라, 자기 분열과 모색의 길항과 충돌 가운데 빚어진 결과”라는 점을 지적하며 주체의 대응 양상이 내포한 차이의 중요성을 언급했다. 한편, 한수영은 “1972년은 청년작가이던 최인호에게,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세계와 현실에 관한 소설쓰기의 모든 가능성과 한계가 동시에 소용돌이치는 하나의 임계 상황을 의미하며, 동시에 그 임계점을 경계로 하여 달라지는 최인호 문학의 변화를 예감케 해주는 지표로서의 의미를 갖는 해”라고 주장하며 최인호의 문학적 변화를 지시하는 구

로 하여 초기 단편과 장편의 변별점을 확인해보고자 한다. 이러한 차이를 중심으로 장편소설에 접근할 때, 최인호의 1970년대 대중소설이 보여주는 특징과 그 가치를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대중소설은 본격소설에 비해 감정에 호소하는 수준 낮은 장르로 평가된다. 다시 말해서, ‘많이 읽히고 어렵지 않은 소설’⁷⁾이라는 점은 부인할 수 없다. 이 사실을 전복하기 위해 대중소설도 충분히 미학적 완결성을 갖추었다고 말하거나 대중소설 역시 현실의 부조리를 폭로하고 비판하는 역할을 수행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대중소설을 특별히 재평가할 만한 것으로 만들지 못한다.⁸⁾ 리얼리즘·모더니즘소설은 현실을 직접적으로 반영할 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구조적 모순과 극복 가능성까지도 탐색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미학적 완결성이나 현실적 역할에 대한 유효성을 중심으로 대중소설을 접근하는 것보다는 대중소설이 대중의 무의식이나 그 시대의 무의식을 담아내는 텍스트로서 존재한다는 점에 주목하여 최인호의 대중소설을 바라보고자 한다. 텍스트에 대한 시선을 작가와 대중의 무의식적 차원으로 이동시키고자 하는 것인데, 이때 70년대 대중소설은 리얼리즘소설이 포착하지 못한 대중의 무의식적 차원을 조명하여 당대 대중의식의 특징을

체적 변별 기점을 제시하고 있다. 한수영, 『억압과 에로스』 작품해설, 『최인호 중단편 소설전집 2』, 문학동네, 2002, 297~298쪽.

7) 조남현, 『한국현대문학사상 탐구』, 문학동네, 2001, 208쪽.

8) 박성봉은 대중예술의 통속성이 고급예술의 진지성과 짝을 이루면서 하나의 자기 완성을 지향할 가능성을 지닌 미적 범주라고 주장한다. 박성봉 편역, 『대중예술의 이론들』, 동연출판사, 1995, 323~369쪽(김현주, 「1970년대 대중소설 연구」, 연세대 박사학위논문, 2003. 재인용); 김현주는 “대중소설 텍스트가 지배 이데올로기를 추구하는 것만이 아니라 그것을 전복시킬 가능성도 내포한 새로운 문화적 경험 공간이라는 사실”을 바탕으로 대중문학의 가치를 주장하는 것으로 논의를 마무리한다. 김현주, 앞의 논문, 150쪽; 김미정은 최인호의 신문연재 장편소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신문소설이 말초적 자극만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도 나름대로 세계관이나 인간관을 담고 있다”고 주장하며 텍스트의 내적 함의 속에서 대중소설의 가치를 탐색한다. 김미정, 『최인호 신문소설에 나타난 욕망 연구』, 이화여대 석사학위논문, 2005, 110쪽.

확인할 수 있게 해주는 텍스트가 된다.⁹⁾ 대중소설이라는 텍스트는 하나의 ‘증상’¹⁰⁾인 것이다. 정신분석학적 의미의 증상은 “타자와의 만남의 과정에서 ‘주체’에게 생겨나는 고통과 향유(jouissance)의 표현으로, 무의식의 세계에 무언가 문제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신호”¹¹⁾이다. 따라서 우리는 증상의 분석을 통해 그것이 함의하고 있는 주체와 타자의 무의식적 차원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지젝은 이러한 증상(꿈-텍스트)을 분석함에 있어, “분석을 통해 밝혀져야 하는 비밀은 형식이 숨기고 있는 내용이 아니라 형식 자체의 비밀”이라고 말한다.¹²⁾ 그렇다면 70년대 대중소설이라는 텍스트-증상은 그 자체로 최인호의 문학적 변화가 내포한 의미뿐만 아니라, 당대 대중의식의 무의식적 욕망을 밝혀줄 대상으로서 가치를 지닌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본고의 문제의식은 김지혜의 최근 논의를 통해 구체화되었다. 김지혜는 먼저, 70년대 청년 대중이 느낀 욕망과 갈등의 흔적이 대중소설 속에서 죄의식이라는 증상으로 나타난다는 사실을 지적하고 있으며,¹³⁾ 70년대 초·중반 최인호의 중단편과 장편소설 사이의 연계성에 대해서 살피는 논문을 통해서 주체의 욕망을 ‘반동일화와 동일화’, ‘비동일화’, ‘도피’의 욕망으로

9) 소영현은 최인호의 소설이 “‘민중’ 주체의 발견을 외치고 그것을 작품으로 실체화하려 했던 70년대의 많은 작업에서는 포착될 수 없었던 70년대의 상황이 하나의 역상(逆像)으로서 그 모습”을 드러내 줄 수 있다고 말한다. 소영현, 『‘스스로 희생자 되기’ 혹은 건담의 서사-최인호론』, 『1970년대 문학연구』, 소명출판, 2000, 446쪽.

10) 김형중은 소설을 하나의 꿈이자 증상이라고 주장한다. 그는 세계가 불완전하다는 사실 앞에서 주체가 욕망을 지속하기 위한 하나의 방식으로 증상을 앓는다고 보고, “소설은 바로 그 사태를 ‘문자’로 앓으면서, 이야기라는 ‘환상’을 통해 파국(정신병적 상태, 혹은 죽음)을 유예시키는 ‘증상’에 다름 아니다.”라고 말한다.(김형중, 『Che Vuoi, Jacques Zizek? : 현대 정신분석학과 한국 문학비평』, 『인문학연구』 44집, 조선대학교 인문학연구원, 2012, 177~180쪽) 필자 역시 이러한 견해에 동의하지만, 본고에서는 범위를 최인호 초기 문학으로 한정하여 70년대 대중소설만을 ‘증상’으로 보고자 한다.

11) 김상환·홍준기 편, 『라캉의 재탄생』, 창비, 2002, 18쪽. 본고에서는 기본적으로 정신분석학 이론을 텍스트의 생산 논리를 해명하는 데 활용하고자 한다.

12) 슬라보예 지젝, 이수련 역, 『이데올로기의 숭고한 대상』, 새물결, 2013, 36쪽.

13) 김지혜, 앞의 논문(2013).

구분하고 최인호 소설의 가능성과 한계점을 살핀다.¹⁴⁾ 이러한 선행연구는 본고의 연구목적에 상당 부분 선취하여 밝혀주고 있다. 다만, 본고에서는 대중소설의 증상적 성격이 최인호가 초기 단편소설을 통해 확보한 분열된 주체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음을 덧붙여 지적하고자 한다. 최인호의 70년대 대중소설은 민중의 연대를 바탕으로 현실의 한계를 극복하려한 당시의 리얼리즘 경향의 소설들과 달리 파편화된 욕망을 타락한 방식으로 지속하는 어떠한 병적 상태를 보여주는데, 최인호가 이러한 성격의 대중소설을 선취할 수 있었던 데에는 초기 문학적 여정이라는 작가적 개별성이 하나의 조건으로 고찰되어야 하는 것이다. 아울러 최인호 대중소설의 한계로 지적된 부분¹⁵⁾은 미학적 수준의 문제가 아닌 텍스트와 대중의식의 관계에서 논의될 문제임을 강조하여 대중소설에 대한 차별적 이해의 가능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2. 초기 단편소설에 나타난 주체의 저항과 분열로의 귀결

하정일은 “60년대 중반은 어쩌면 문학사의 새로운 단계로 진입하는 출발점일지도 모른다. 이른바 자본주의 시대의 문학이 전면화되기 시작한 것이다.”¹⁶⁾라고 말하며, 60년대 소설이 자본주의식 근대화에 대한 곤혹스런 인식을 바탕으로 구성된 서사라고 설명한다. 구체적으로 1960년대 소설의 인물들은 소외, 몰화, 궁핍화의 문제 앞에서 ‘어떻게 혹은 누구로 살아야 하는가?’라는 성찰의 태도를 명확하게 드러낸다.¹⁷⁾ 이때의 ‘자기세계 확립’은 최인호

14) 김지혜, 『조숙과 만숙의 경계-1970년대 최인호 소설을 중심으로』, 『어문론집』 59호, 중앙어문학회, 2014.

15) “그는 1970년대 사회의 타락과 부패를 날카롭게 포착하고 고발하지만, 그 세대 비판에서 더 나아가지는 못한다는 한계를 지닌다. 그리고 신문연재 장편소설에서는 세대에 대한 비판정신 역시 후면화되고, 소비적인 성과 사랑이라는 대중적이고도 개인적인 주제에 함몰되고 만다.”, 김지혜, 앞의 논문(2014), 270쪽.

16) 하정일, 『주체성의 복원과 성찰의 서사』, 『1960년대 문학연구』, 깊은샘, 1998, 33쪽.

소설의 문제의식이기도 했으며, 이 과정은 타락한 세계와 개인의 대결을 통해 전개되었다. 2장에서는 최인호의 인물들이 부조리한 세계에 저항하는 양상을 중점적으로 살펴보고 분열된 주체를 바탕으로 한 자기세계의 확립이 최인호 문학에서 어떠한 의미를 갖는지를 밝히고자 한다.

최인호의 단편소설¹⁸⁾ 「술꾼」, 「모범동화」, 「예행연습」, 「처세술 개론」 속 아이들은 부조리한 어른들의 허위를 꿰뚫어 보는 조숙한 면모를 보인다. 사실 이러한 성격은 아이뿐만 아니라 청년 주인공들에게도 나타난다. 「견습환자」(1967)에서 현대식 병원에 입원한 ‘나’는 그 안에서 결코 웃음을 발견하지 못한다. 뿐만 아니라 기계처럼 살아가는 인간들의 삶¹⁹⁾은 그에게 ‘참으로 이상한 일’로 인식된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세계 인식이 적극적인 실천, 즉 부조리를 해결하고 자신의 정체성을 확보하려는 저항적 시도로 이어진다는 사실이다. 그는 자신을 둘러싼 세계를 면밀히 관찰하면서 자신의 역할을 탐색한다.

「견습환자」의 주인공은 멀쩡한 자신을 점점 모범환자로 만들어버리는 병원의 질서에 맞서 저항하지 않을 수 없다. 부조리한 세계에 대한 비판적 인식이 가장 잘 나타나는 부분은 주인공이 젊은 인턴에게 농담을 건네는 장면이다. 그는 농담 속에서 ‘이미 깊은 잠에 빠진 환자를 황급히 깨워 기계적으

17) 하정일은 60년대 문학의 본질을 ‘주체의 복원’과 ‘서사성의 회복’으로 전개한 ‘성찰의 서사’라고 본다. 하정일, 앞의 책, 40~44쪽.

18) 「술꾼」, 「모범동화」, 「사행」(1970), 「예행연습」, 「될 잃으신 게 없습니까」, 「처세술 개론」(1971) 등은 1970~71년에 걸쳐 여러 문학지를 통해 발표되었지만, 이 작품들이 대부분 1965~69년 사이에 쓰여졌고, 「타인의 방」과 「미개인」(1971)도 1970년에 쓰여진 작품이라고 언급한 작가의 말을 전제로, 본고에서는 「타인의 방」, 「미개인」도 1960년대 단편소설의 자장(磁場) 안에서 다루고자 한다. 최인호, 작가의 말, 『별들의 고향』, 샘터사, 1994, 7~12쪽 참고.

19) “그들은 잠을 자야 할 땐 수면제를 먹었으며, (...) 피로할 땐 가루 비타민C를 물에 타 먹었으며, 성욕이 고개를 들면 간단히 진통제로 말살해버렸다. 도대체가 그들은 충분한 영양을 취하고 있는 온상 속의 귀족 식물이었던 것이다. 며칠이 지나도 나는 그들이 가려워하는 곳을 발견하지 못하였다.” 최인호, 「견습환자」, 『최인호 중단편 소설전집1』, 문학동네, 2002, 17쪽. 이하 작품명과 쪽수만 기재.

로 수면제 먹을 시간임을 알리는 간호사'를 등장시켜 병원의 질서에 동화된 채 살아가는 인간들을 조롱한다. 그는 이러한 조롱과 비판을 통해 '인간소외'의 문제를 지적하고 인간의 가치를 다시금 회복시키려는 노력을 보여준다. 그는 “그들을 웃기기 위해서 고용된 사설 코미디언 같은 무거운 책임의식”을 갖고, 피병부리기, 농담하기, 문패 바꾸기²⁰⁾라는 방법으로 병원 사람들에게 게 인간적인 질서와 웃음을 찾아주고자 한다.

『순례자』(1969)에서는 어머니를 모시고 새로운 집을 찾기 위해 순례를 떠나는 대학생이 등장한다. 그는 경제개발의 불균형 때문에 점차 변두리로 밀려나게 되는 서민들의 삶을 보면서 현실의 부조리를 비판한다. 뿐만 아니라 그는 이 과정에서 점차 타락해가는 서민들의 모습 또한 발견한다. 그는 새로운 집 찾기가 자신에게 주어진 '거룩한 사명'이라고 선언하는데, 여기서의 '집'은 타락해 버린 세계 속에서 찾아야 할 가치로서 '정직한 인간관계'로 볼 수 있다.

『술꾼』(1970)은 완벽한 아버지를 찾아 술집을 떠도는 아이의 여정을 통해, “집을 저주하고, মানুষ 저주하고, 만아들을 둘째아들을 저주하고, 생활을, 미래에 대한 희망을, 원수놈의 월급을, 도대체가 살아가는 그 자체를, 그리고 자기 자신을 저주”²¹⁾하는 술꾼들로 가득 찬 세계를 묘사한다. 여기서도 아이는 무기력한 술꾼들 대신 상상 속의 아버지 같은 '능력 있는 어른'이 되고자 하는 의지를 꺾지 않는다. 아이는 술을 마시기 위해서 아버지 핑계를 대는 것이 아니라²²⁾, 무능력한 술꾼이 되지 않는 길(아버지)을 탐색하는 과정에서

20) 『견습환자』, 18쪽, 21쪽, 26쪽.

21) 『술꾼』, 97쪽.

22) 많은 연구자들은 『술꾼』의 아이를 영악하고 어른보다 더 타락한 아이로 읽어내곤 한다. 즉 세계의 부조리를 충격적으로 폭로하는 하나의 기법으로 보는 것이다. “어쩌면 당초부터 공짜 술을 얻어먹기 위해 아버지를 핑계 대고 있었던 것 (...) 술꾼으로 전락해버린 아이의 존재와 그의 정신을 그토록 황폐하게 만들어버린 참담한 현실이 존재한다는 사실의 인식이 문제가 된다.” 권영민, 『한국현대문학사 2』, 민음사, 2002, 272쪽; “그는 술에 취해 아이에게 술을 권하는 어른들, 돈만 있다면 아이에게도 술을 파는 작부의 세계를

결과적으로 술꾼이 되어 버렸을 뿐이다.²³⁾ 『술꾼』의 아이는 무능력한 술꾼들과 달리 완전한 자기세계를 완성할 수 있다고 믿는 순수한 자아라고 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는 “아주마니, 내가 클 때까지만 죽지 말라요. 그제 이 짝 물구 참아보라요”라고 말하면서 다른 술꾼들을 대신해 술집 작부를 구원할 어른이 되겠다는 포부를 내보일 수 있는 것이며, 고아원에 살면서도 “내일은 틀림없이 아버지를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단정”²⁴⁾할 수 있는 것이다.

『모범동화』(1970)는 학교 앞 잡화점 주인 강씨가 자살한 이유를 추적하는 서사인데, 여기서도 세계는 위선과 속임수로 아이들을 이용하는 어른들과 이를 알지 못하는 평범한 아이들로 가득 차 있다. 단지 새로 전학 온 아이만이 “저건 우리를 속이려는 악질행위다. 속아서는 안 된다. 절대 속아서는 안 된다. 난 안 속는다”²⁵⁾라고 중얼거리며 세계의 허위를 간파한다. 그는 거기서 멈추지 않고 노련한 아바위꾼인 강씨의 노름판에서 아이들을 구원할 사명을 감당하기로 한다. 그는 어떠한 보상도 바라지 않은 채 묵묵히 자신의 책임을 다하는 것으로 자기세계를 완성해 나간다.²⁶⁾

흔히 꿰뚫고 있으며, 이들을 이용하는 것이다.”, 김지혜, 앞의 논문(2014), 252쪽; “아이들은 실제로는 단지 술에 의지하여서만 자신의 현실을 지탱할 수 있는 최악의 상황에 놓여 있지만, 잠시 부재하는 아버지에 대한 환상으로 그러한 실제적 진실을 회피하는 것이다.”, 박상순, 『탈주체적 등장인물 연구-최인호와 김영하의 단편소설을 중심으로』, 『한국근대문학연구』 15호, 한국근대문학학회, 2007, 79쪽. 본고에서는 ‘조숙한 아이’의 모습을 현실 비판적 태도가 만들어낸 하나의 증상적 캐릭터라고 본다. 최인호의 초기 소설 속 인물들은 기본적으로 구원이 가능하다고 믿는 ‘순수한 자아’여야 할뿐만 아니라 타락한 세계의 모습을 폭로할 수 있는 능력, 즉 깨어있는 ‘현자’여야 하기 때문에 ‘애늬은이’와 같은 압축적 이미지가 나타난 것이다.

23) “원래 아이의 소망과는 달리 아이는 자신도 모르게 술주정뱅이가 되어가는 것이다.”, 『최인호론-비동일성의 시선과 낮설게 하기』, 『현대문학연구』 11호, 한국현대문학연구학회, 1998, 176쪽.

24) 『술꾼』, 108쪽, 109쪽.

25) 『모범동화』, 117쪽.

26) “그러던 어느 날 웬 아이가 원판 앞에 모여선 아이들을 비집고 앞으로 나서며 강씨에게 얼굴을 내밀었다. (…) 그 녀석은 단 두개의 동전으로 스무 개의 사탕을 획득했다. 소년은

마지막으로 『타인의 방』(1971)을 살펴보면, 물신화된 아파트 공간 속에서 인간이자 남편으로서의 가치를 회복하고자 하는 인물의 고투를 확인할 수 있다. 그는 사물로 전락(轉落)하기 전까지 계속해서 아내의 부정(不貞)과 물신적 공간의 황폐함을 과거의 추억과 자신의 온기로 채우려 시도한다. 그는 아내가 퇴근하는 자신을 따뜻하게 맞아주길 꿈꾼다. 그리고 서로를 의심하는 아파트의 이웃들을 경멸하고, 아내를 대신해 방을 채우고 있는 사물들의 기만에 분노를 느낀다. 이는 반성적인 꿈²⁷⁾을 통해 더욱 감각적으로 드러난다. 기본적으로 그의 불만에는 물신화된 세계에 대한 거부감과 '휴머니즘의 회복'을 향한 열망이 담겨 있다.

이처럼 최인호의 초기 단편소설 속 인물들은 세계의 모순을 진단하는 위치에 서 있으며, 타락한 세계에 적극적으로 저항하는 태도를 통해 자기세계를 완성한다. 이때 강조되는 것이 인간적인 관계, 정직함, 현실적 능력 등의 휴머니즘적 가치들이다. 하지만 최인호의 인물들은 부조리한 세계 앞에서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채 패배하고 만다. 도덕적 타락이나 죽음, 사물화의 이미지가 지배하는 결말은 미학적으로 균열된 세계를 드러낸다. 중요한 점은 이러한 균열이 인물들이 구축하고자 했던 자기세계를 왜곡된 양상으로 확립시킨다는 사실이다.

『견습환자』의 주인공은 끝내 의사를 웃겨주지 못한 채 퇴원하게 되는데, 그는 그 순간 '아름다운 여인'과 '콜라'를 마시고 있는 젊은 인턴의 얼굴에서 웃음을 발견한다. 그리고 그 역시 '술집'과 '극장'이 있는 거리로 들어선다.²⁸⁾

그 사탕들을 둘러서서 감탄의 눈으로 바라보고 있는 아이들에게 골고루 나누어주었다. 그의 얼굴엔 기쁨도 환희도 아무것도 엿보이지 않았다. 그는 오직 매우 피로하고 지쳐 있는 것처럼 보였을 뿐이었다.” 『모범동화』, 124쪽.

27) 심재욱은 『타인의 방』에 나타난 환상적인 장면을 인물이 스스로를 반성적으로 인식하는 꿈으로 본다. 심재욱, 「최인호 단편소설 『타인의 방』 서사구조 연구」, 『우리문학연구』 45집, 우리문학회, 2015, 300쪽.

28) “그때 나는 차창 너머로 그 젊은 인턴이 어떤 아름다운 여인과 파라솔 밑에서 콜라를 마시고 있는 모습을 발견했다. 그 모습은 한 폭의 그림처럼 인상적이었다. (...) 나는 점점

최인호의 인물들은 어느새 시민증과 술, 영화, 도박, 매춘 등의 방식을 통하지 않고서는 새로운 세계에서 살아갈 수 없음을 인정하고 만다. 앞서 「견습환자」의 주인공이 수면제와 영양제, 진통제로 인간의 생식욕을 대체하는 의사들의 기계 같은 삶을 조롱했던 것과 비교하면 내면화의 양상이 얼마나 스스로에게 분열적인 것인지 알 수 있다. 결국 최인호가 추구한 ‘자기세계’의 구축 과정에는 “현실에 대한 부정, 거부뿐만 아니라, 왜곡된 현실의 수용, 그것의 내면화까지 포함”되면서, 타락한 세계를 거부하는 환멸과 그 세계 속에서 살아가야 하는 자신에 대한 연민이 동반된다.²⁹⁾

한편 「순례자」의 주인공은 결코 세계의 허위에 속지 않는다. 하지만 어느새 속고 속이는 관계 속에서 스스로 타락해 버린다. 뿐만 아니라 더러운 세계라 침을 뱉으면서도 어머니와 함께 그곳에 매혹당해 벗어나지 못한다. 「술꾼」의 아이 또한 상상 속의 아버지를 찾지(되지) 못한다. 그는 술에 대한 환멸을 보이면서도³⁰⁾ 결국 술에 기대 안이한 낙관에 빠져버리는 ‘고아 술꾼’이 되어버린다. 「모범동화」의 전학생 역시 거짓된 세계를 바로잡지 못한다. 강씨는 자신의 타락을 회개하는 대신 죽음을 택하고, 아이들 역시 더 악랄한 어른들의 상술 속으로 내던져진다. 전학생은 도박 이외의 방식으로 강씨를 상대하지 못했고, 강씨가 왜 잡화점과 야바위를 그만둘 수 없었는지에 대해 알지 못했다. 따라서 전학생이 마지막 순간에 보여주는 자책은 단순한 것이

떨어져가는 병원 한구석 코스모스 피기 시작하는 병원에서 방금 그 젊은 인턴이 웃음을 띤 것 같은 환영을 보았다. 나는 그것이 사실인가를 확인하기 위해서 바깥 차창에 눈을 밀착시키고 무어라고 손짓을 해가며 얘기를 나누고 있는 나의 사랑스러운 환자를 쳐다보았다. (...) 동생은 내게 유혹하는 목소리로 자기가 최근에 발견한, 술값이 싼 술집과 재미 있는 영화를 하는 극장이 어디인가를 알려주었다.” 「견습환자」, 28쪽~29쪽.

29) 정희모, 「1960년대 소설의 서사적 새로움과 두 경향」, 『1960년대 문학연구』, 깊은샘, 1998, 57~61쪽.

30) “‘망할 놈의 술이다’ 익숙하고 노련한 술꾼들이 누구나 그러하듯 이번 기회로 한번쯤 절제하리라 작정했을 때, 갑자기 어정쩡해지고 늙어 보이는 것처럼 순간적인 절망, 슬픔, 비애가 아이의 작은 얼굴을 우울하게 스쳐 지나갔다.” 「술꾼」, 98쪽.

아니다. 자신이 강씨와 다르지 않으며 똑같이 타락해버렸음에 대한 자각이며 연민인 것이다.³¹⁾ 『타인의 방』의 그는 아내의 타락을 막지 못하며, 스스로 사물이 되길 선택한다. 아내뿐만 아니라 그 역시 인간적으로는 서로에게 위안을 줄 수 없는 존재로 전락하는 것이다.³²⁾ 하지만 휴머니즘을 포기하고 사물로 부활한 뒤에도 그와 아내는 서로에게 지속적인 위안이 되지 못한다.

그렇다면, 최인호의 초기 단편소설이 그의 문학적 여정에서 갖는 중요성은 무엇인가. 최인호의 인물들은 냉철한 성찰을 바탕으로 자신을 둘러싼 현실적인 문제가 인간 소외와 물신화, 허위, 무능력, 낙담 등에서 비롯된다고 파악한다. 이 지점에서 최인호의 인물들은 휴머니즘적 가치와 현실적 능력을 중심으로 세계와 관계 맺기를 시도한다. 하지만 타락한 세계와의 관계 속에서 인물들은 스스로가 타락해 버렸음을 발견하게 된다. 타자의 질서는 어느새 주체를 잠식해 분열시키고 욕망을 왜곡시켜버리는 것이다. 따라서 최인호의 초기 텍스트들의 진정한 의미는 ‘타락한 세계에 맞서는 과정에서 저항과 매혹으로 분열되어버린 주체의 발견’이라고 할 수 있다. 타락한 세계에 대한 저항과 순응의 태도가 극단적으로 혼재되어 나타나는 분열된 주체는 최인호의 문학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이다. 뿐만 아니라 인물들이 자신의 분열된 양상을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는 ‘불가피함’으로 간주하고 ‘연민’의 감정을 통해 자기세계로 확립한다는 사실은 이후 최인호 문학의 전개에 있어 새로운 출발점이 된다. 분열된 주체의 발견과 그로 인한 회의주의(현실

31) 강씨의 존재가 노동자로서의 과거와 자본가로서의 현재, 그리고 상징적 모범어른과 위선적인 야바위꾼으로 분열되어 있었듯이, 전학생 역시 강씨에게 속임수 훈련을 강요하는 도박꾼인 동시에 양심적 회개를 강요하는 ‘분열된’ 초자아였을 뿐이다. 강씨가 실행이주 민이었다는 사실과 아이가 전학 온 학생이라는 점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다.

32) “아내의 껌이 그를 유일하게 위안해주었다. 그래서 그는 한결 유쾌해졌고 때문에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다.”, “그 물건은 그녀가 매우 좋아했던 것이었으므로 며칠 동안은 먼지도 털고 좀 빗하긴 하지만 키스도 하긴 했다. 하지만 나중엔 별 소용이 닿지 않는 물건임을 알아차렸고 싫증이 났으므로 그 물건을 다락 잡동사니 속에 처넣어버렸다.”, 『타인의 방』, 190쪽, 199쪽.

도피)로의 경사를 지적하지 않고 단순히 저항적 측면만 강조하는 것은 언제나 텍스트의 잉여를 남기게 된다. 아울러 초기 단편소설의 의미는 이후의 대중소설과의 관련 속에서 언제나 열려 있어야 하는데, 초기 단편이 발견한 분열된 주체와 자기세계의 가치가 이후 『별들의 고향』을 필두로 한 대중소설 속에서 저항의 기반이 되지 못한 채 자폐와 타락으로 돌아서기 때문이다.

3. 1970년대 대중소설이라는 증상과 대중의식

3.1. 기만과 죄의식으로 구조화 된 『별들의 고향』

1972년 9월부터 연재를 시작한 최인호의 『별들의 고향』은 문단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하나의 사건이었다. 우선 이 사건은 『문학과 지성』에서 주목하던 최인호가 문단에서 배제되는 계기가 된다. 『황진이』를 시작으로 본격적으로 제기되던 최인호에 대한 의심(우려)³³⁾이 마침내 기정사실처럼 선포된다. 당시 문단은 최인호의 허무주의로의 경사가 퇴폐적 낭만성으로 귀결되었다고 보고, 더 이상 문학적 가치를 부여하지 않게 된 것이다. 한편 『별들의 고향』은 초대형 베스트셀러가 되어 대중문학의 시대를 열었고, 당시 청년문화논쟁의 중심에 서기도 한다.³⁴⁾ 모든 문학사의 전개가 그러하듯, 1970년대 소설 또한 60년대 소설이 어떠한 한계에 부딪치면서 반동으로 형성되었다고 볼 수 있다. 여기서 어떠한 한계라고 말한 것은 70년대에 나타난 리얼리즘소설(민족·민중·농민·노동문학론 등)과 최인호의 대중소설이 인식한 한계가 달랐기 때문이다. 60년대 문학은 내면을 중심으로 한 주체의 완성을 추구했지만 그 시도가 실패하자 시선을 외적인 방향으로 확대할 수밖에 없게 된다.³⁵⁾ 이때 70년대 리얼리즘소설이 세계의 분열과 개인의 타락이

33) 김현, 『재능과 성실성』, 『문학과 유토피아』 전집4, 문학과지성사, 1992, 200쪽.

34) 박필현, 앞의 논문, 211쪽.

라는 한계를 민중의 연대를 바탕으로 극복하고자 했다면, 최인호는 이를 포기하고 다른 식의 존재 가능성을 탐색한다.

최인호는 중편소설 『무서운 복수』(1972)에서 주인공 최준호를 통해 타락한 세계에 맞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주체'의 모습을 그려낸 바 있는데, 이 작품은 이후 『별들의 고향』(1973) 속 인물들의 태도 변화를 이해할 수 있게 해주는 밑바탕이 된다. 대학생이자 소설가인 최준호는 사회 속에서 살아야 하는 주체란 타락한 세계의 방식으로 분열되어 있음을 알고 있기에, 결코 타자가 바라는 '나의 위치'를 적극적으로 떠맡지 않으려 한다. 오직 그것만이 타락한 질서를 실천하지 않으면서, 타자의 욕망을 주체의 욕망으로 전유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것이 최인호가 초기 단편소설의 끝에서 '민중 주체'를 대신해 제시한 '행동하지 않는 주체'의 가능성이다.³⁵⁾ 하지만 『무서운 복수』의 회피적 태도가 가졌던 위험성, 즉 행동하지 않는 태도가 얻게 되는 달콤함³⁷⁾은 『별들의 고향』에 이르러 도착적 쾌락으로 나타난다. 최준호가 행동

35) 하정일은 60년대 문학의 한계와 70년대 저항문학의 출현을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60년대 문학에서부터 주체가 복원되기 시작했다. 하지만 거기에는 실천이 결여되어 있어 항상 모호하고 불안정한 모습을 보여준다. 다시 말해서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위태로움 속에서 60년대 문학의 주체는 내내 흔들리고 있는 것이다. 민중의 발견은 60년대의 모호하고 불안정한 주체와는 다른 새로운 주체성을 창출했다. 그것은 실천을 통해서 자신을 확고히 하는 주체이니, 저항의 서사는 바로 이러한 실천적 주체의 문학적 표현인 것이다.” 하정일, 『저항의 서사와 대안적 근대의 모색-산업화 시대의 민족문학』, 『1970년대 문학연구』, 소명출판, 2000, 20쪽.

36) 논의가 분산될 수 있어 자세하게 다룰 수는 없지만, 『무서운 복수』는 초기 단편과 마찬가지로 텍스트 자체가 당시 현실의 무게를 감당하면서 세계의 부정성을 비판하려는 태도를 보여준다. 최준호는 반정권 대학생들의 맹목성, 허위성을 간파하고 결코 데모에 참여하지 않으면서도, 동시에 졸업을 볼모로 교련 수업을 강제하는 군부정권의 폭압성 역시 비판한다. 또한 자신이 기회주의자일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며 진정한 가치(용기)의 의미를 끊임없이 탐색한다. 이처럼 『무서운 복수』의 히스테릭한 인물들은 통시적·공시적 측면에서 현실역사에 단단하게 뿌리내린 존재라는 점에서 기형적인 한국사회와 청년의 구조적 본질에 대한 이해 가능성을 제시해 준다.

37) 이러한 상황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이 바로 학생회장단 선거에 관한 묘사이다. “우리들은 매년 봄이면 이쪽에 불려가서 커피도 얻어먹고, 저쪽에 불려가서 자장면도 얻어

을 대신해 답론을 택하면서도 현실에 대한 관심을 놓지 않았다면, 김문오를 비롯한 경아와 혜영은 본질적 문제를 대신하는 파편적 문제에 몰두하면서 살아간다. 주체가 자기세계의 타락한 일면에 눈 감을 수 있는 것은 살아남기 위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인데, 그 불가피함에 대한 연민이 어느 순간 역전된 쾌락을 주는 것이다.³⁸⁾

그 즈음 나는 정말 하는 일이라곤 없었다. 저녁에 친구들을 만나 술이나 마시면서 세월을 보내는 것 이외에는 나는 그 즈음 내 인생을 그릇된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군대에서 제대하고 학교를 졸업하고 나서도 나는 정말 내가 그림을 그려야 할 것인지 아니면 집어치워야 할 것인지 막연해서, 어디 좋은 취직자리만 나서면 미술이고 예술이고 아예 집어치우리라 마음먹고 있었다. 나는 내 자신의 재능을 믿고 있지 않았다. 나는 너무 무딘 편이거나 아니면 지나치게 감상적이었다. 그래서 서른이 되도록 영화를 보면서 질질 울곤 하였다.

(『별들의 고향 下』, 41쪽)³⁹⁾

『별들의 고향』에서의 김문오는 「무서운 복수」의 최준호와 같은 청년 계층이지만 세계와 맞설 명분도 없으며, 그렇다고 자신의 욕망이 정확하게 무엇인지 갈피를 잡지 못한 채 분열되어 있는 모습을 보인다. 그는 그림을 전공하고 대학도 졸업했지만 서른이 되도록 경제적으로 자립하지 못한 채 무기력하게 살아가는 청년백수일 뿐이다. 기존논의에서는 경아와 만나기 전의

먹는 풍토에 맛을 들여서 시골 아낙네들이 고무신 한 켤레에 표를 찍는다는 이야기를 실감하고 있을 정도였다. (...) 언제부터인가 우리들은 테모를 하지 않으면 온몸이 쑤시는 버릇이 들었던 것이다.”, 「무서운 복수」, 『최인호 중단편 소설전집2』, 203~204쪽.

- 38) 차혜영은 김승옥의 초기 단편소설들을 분석하면서, “‘자기세계’가 세계보다 더 속악하고 보잘 것 없음에도 지키려하는 이유는 단지 ‘내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그리고 그 선언으로 인해 “주체는 근대화의 거스를 수 없는 흐름에 의해 초월적 보편성으로부터 해방(소외)되고, 파편화되고 자립화된 주체로 세계를 살아가게 된다.”라고 말한다. 본고는 이러한 견해가 최인호의 경우에도 다르지 않다고 본다. 차혜영, 「자율적 주체의 개인주의와 모더니즘적 글쓰기」, 『1960년대 문학연구』, 깊은샘, 1998, 104~106쪽.

- 39) 최인호, 『별들의 고향 上, 下』, 샘터사, 1994.

문오를 미처 상징계에 진입하지 못한 미숙한 자아로 보고, 경아를 버리고 떠난 이후의 문오는 현실에 순응한 상징적 주체로 읽어낸다.⁴⁰⁾ 하지만 문오가 욕망하는 대상과 욕망하는 방식을 미루어 볼 때, 처음부터 그는 당시의 '청년 주체'(상징적 주체)와 다르지 않아 보인다.

내가 지금껏 서른세 살까지 살아오는 동안 대부분 나는 줄곧 혼자였다. 나는 혼자 일어나 아침을 해먹고, 혼자 그림을 그렸고, 혼자 주말에 영화를 보았다. (...) 술만이 나의 위안이었다. 종일토록 그림을 그리다가 저녁 무렵 외투를 걸치고 가까운 친구를 만나 마시는 한잔의 술은 나의 유일한 위안이었다.

(『별들의 고향 上』, 48쪽)

위의 장면은 경아와의 이별 이후 3년이 지난 후 문오의 일상인데, 여기서 보면 문오는 예전과 다름없는 태도로 세상을 살아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는 예전과 달리 미술계에서 인정받고 대학에서 강의를 하는 등 스스로의 밥벌이를 책임지고 있지만 여전히 '어떠한 슬픔'을 느끼는 우울한 주체이다. 때문에 문오는 처음과 마찬가지로 영화와 술에 의지한 채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준다. 주목할 점은 문오의 일상이 드러내는 비는 당대의 청년 주체들이 보였던 분열적인 양상, 그 복합적인 인식의 표출이라는 점이다. 문오가 술·영화-연애-그림-술·영화에 탐닉하는 동시에 그 자체에 대한 거부감을 함께 드러내고 있다는 사실은 "표면적인 정치성의 삭제와 소비할 수 있는 물

40) 김지혜의 경우, “문오는 상징계적 질서에 제대로 진입하지 못한 좌절된 자아를 경아에게 투사”하고 난 이후에야 상징계적 질서에 편입할 수 있었다고 보면서, “『별들의 고향』이 경아의 죽음을 통한 남성 입사담”(김지혜, 앞의 논문(2013), 234쪽)으로 읽는다. 따라서 문오와 경아의 상태는 ‘미숙’의 상태인 것이다. 박필현 또한 “『별들의 고향』은 애정서사이자 성장 서사인 동시에 한 여자의 죽음을 접한 성숙한 한 남자의 애도, 회고라는 형식으로 진행되는 살아남은 자의 상실과 애도의 서사이기도 한 것”(박필현, 앞의 논문, 214쪽)이라면서 상징적 세계로 이동한 문오와 상상적 세계에 남겨진 경아의 모습을 강조한다. 따라서 문오가 느끼는 죄의식이나 상실에 대한 애도는 상징적 주체가 되는 과정에서 나타난 결과인 것이다.

리적 여유”⁴¹⁾에 매혹된 당대의 청년주체와 관련해서 살펴 볼 필요가 있다.⁴²⁾ 기존논의가 1970년대 대중소설의 인물들을 다루면서 당대의 청년 주체와의 관련성을 언급한 것은 이러한 면을 발견했기 때문일 것이다.⁴³⁾ 따라서 문오의 모습은 미성숙에서 성숙으로의 변화 문제가 아니라 분열된 주체의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 또한 경아와 혜영이라는 여성인물 역시 동일한 청년 주체로 보고 이들의 순응적(쾌락) 태도와 저항적(죄의식) 태도가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함께 살펴야 한다.

이런 얘기하면 아저씨는 내가 싫어질지도 몰라요. 난 정말 이상한 여자예요. 난 말이에요, 남자가 없으면 말이에요, 곧 죽어버릴 여자인 모양이죠? 난 그래요, 그런 여자예요. (...) 경아는 술이 취해 밧그레 상기한 얼굴로 재잘거렸다.
(『별들의 고향 下』, 166, 173쪽)

혜정은 나의 애인이었다. 혜정은 내가 철들고 사귄 유일한 여인이었다. 그녀는 나이에 비해 어른스러운 데가 있었다. (...) 나 어쩌면 약혼할 거야, (...) 그런데 이상해요. 그 사람이 싫어, 아주 싫어지고 보기만 하면 두드러기가 날 정도야. (...) 사람은 좋은 사람인데 아주 보편적인 남자야. 흔히 어른들이 좋아하는 사윗감이라는 사람이야. 기름 발라 머리 빗구 존대말을 당연하게 사용하구, 거리를 걸을 때는 자기가 바깥쪽에 서는 에티켓에 익숙한 남자야.

(『별들의 고향 下』, 55쪽)

41) 박필현, 앞의 논문, 222쪽.

42) 송은영은 “사회개혁과 변혁의 주체로서의 ‘민중’과 문화와 소비의 주체로서의 ‘대중’이 현실에서는 뚜렷하게 분리되어 있지 않은 집단”이었고, 당대 청년 주체가 저항적 가치를 중시하는 것 못지않게 문화소비적 가치에 경도되어 있었음을 밝히고 있다. 송은영, 「대중 문화 현상으로서의 최인호 소설-1970년대 청년문화/문학의 스타일과 소비풍속」, 『상허학보』15호, 상허학회, 2005, 420쪽.

43) “1970년대 대중소설에 나타난 죄의식의 양상은 단순히 소설 속 등장인물의 개인적 문제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당대의 독서 대중이 근대적 주체로서 느끼는 욕망의 특질과 관계된 것.” 김지혜, 앞의 논문(2013), 227쪽; “『별들의 고향』은 경아와의 일체감과 결별 과정, 혜정과 경아 사이에서의 갈등 등을 통해 그 기저에서는 일상에 의한 청춘의 포섭을 다루고 있는 것이다.”, 박필현, 앞의 논문, 223쪽.

문오와 경아는 서로를 ‘분신’이나 ‘쌍둥이’로 생각한다. 그 말은 이 둘은 똑같은 성격의 주체라는 말이 된다. 경아 또한 남자와 술에 의지하여 살아가는 존재이면서 동시에 그러한 자신의 모습에 거부감을 느끼는 주체이다. 한편, 혜정은 약대생으로서 착실하게 생활하며 대학교 3학년이 되자 어른들 말대로 보편적인 은행원과 결혼을 준비하는 여인이다. 혜정은 문오나 경아에 비해 훨씬 안정적인 삶의 경로를 밟고 있지만, 그녀 역시 자신의 삶에 대해 무의식적으로 저항감을 드러낸다. 하지만 이들 모두는 물신화되고 타락한 당시 사회에 환멸을 느끼면서도 그 세계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새로운 시대가 약속한 매혹을 포기할 수 없는 것이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문오를 비롯한 인물들이 파편적인 욕망을 만족시키는 방식이다. 문오가 어떠한 불만족 상태에 있었던 것은 그가 사회적 요구에 제대로 응답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문오에게 가장 시급한 문제는 취직이라고 볼 수 있다. 취직만 되면 문오는 사실상 정신적 무기력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문오가 “나는 무능력자였다. 그것은 정말이었다”라고 말하면서 그림에 대한 자신감을 상실케 한 원인으로 ‘군대에서의 경험’⁴⁴⁾을 들먹이는 것은 책임으로부터 도망치려는 수작이 된다.⁴⁵⁾ 문오의 본질적인 문제를 외면하고 그 자리를 대체할 환상을 구성한다. 즉, 스스로를 기만하고 자신의 문제를 경아와의 연애로 돌리는 것이다. 문오는 경아와 혜정을 통해 자신의 결핍을 채우고 ‘보편적 청년’의 위치를 누리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이러한 도착적 쾌락⁴⁶⁾은 우월 콤플렉스와 열등 콤플렉스⁴⁷⁾를 통해 가능해진다.

44) “언제부터인가 딱 기억할 수 없지만 내가 내 그림에 대해서 자신이 없어진 것은 군대에 입대하고 그림과는 거리가 먼 전방에서 보초를 서고, 강소주를 마시고 음담패설이나 해대는 사병 생활을 보낸 후부터였다. 나는 철저히, 너무나 철저히 사병 생활에 탐닉하였다. 군대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곤 병영 안에 있는 오락실 벽에 영화배우 얼굴을 페인트로 그리거나, 주보 정문에 별거벗은 자못 음탕한 나체 여인을 그리는 정도였다. 그런 장난 외엔 나는 스케치조차 하지 않았다.”, <별들의 고향 下>, 43쪽.

45) 이는 스스로의 욕망을 구성하지 못한 채 ‘저항’이란 이름으로 데모에 맹목적으로 투신하거나 ‘자유’를 말하며 무절제한 유흥을 즐기던 청년세대의 부정적인 태도와 닮은 것이다.

문오가 경아를 이용했다고 볼 수 있는 것은 그녀를 통해 문오가 열등 콤플렉스를 해소했기 때문이다. 문오는 자신보다 열등한 경아 앞에서 경제적으로나 지적으로나 우월한 위치에 서게 되는데, 이를 통해 문오는 도착적 쾌락을 누린다. 한편 문오는 자립적이고 능력 있는 약사인 혜정에게 열등함을 느끼면서도, 경아와의 관계에서 문제가 생길 때마다 혜정을 찾아간다. 그가 혜정에게 느끼는 열등 콤플렉스는 정신적 무기력만 극복하면 경아와의 세계가 아니라 혜정의 세계에서 살아갈 수 있는 존재라는 자아도취적 만족감을 준다. 따라서 문오에게 그녀들은 한낱 ‘도구’에 지나지 않는다. 단순히 자신의 행복(만족)을 위해 그녀들을 이용하면서도 겉으로는 그녀들을 사랑하고 아낀다고 믿는 문오의 행위는 그래서 자기 기만적인 것이다.

경아는 대학교에 안 보내준다면 죽어버리겠다고 으름장을 놓곤 했었다. 그러나 이미 그녀의 집안은, 대학을 보내 그 이상할 정도로 비싸만 가는 대학 등록금을 충당하기에는 기울어져 있었다. (『별들의 고향 上』, 86쪽)

경아가 만준의 청혼을 받아들인 것은 이미 봄날도 저물어가고 초여름의 신록이 우거진 어느 날 만준의 딸 명혜의 학예회에 참석하고 난 후였다. (...) 한때는 중퇴하긴 했지만 음대에 다니면서 성악을 공부한 적도 있었고, (...) 그때 경아는 소녀의 춤이 전혀 타인의 것이 아닌 자기 자신의 일부로 받아들여지는 것을 느꼈다. (...) 소녀의 파스한 손 감촉이 경아의 마음을 설레게 했고 여성 특유의 모성애가 발동시키기 시작하였다. 결혼하자. (『별들의 고향 上』, 230~236쪽)

46) 대중사회에서 대중들은 “어떤 행위가 도덕적인지 아닌지에 대한 판단을 그 행위에 내재하는 가치나 그 행위가 그에게 가져다줄 이익이 아니라 단순히 ‘다른 사람과 동일할지 아닌지’를 기준으로 결정하기 때문”에 도착적이 된다. 우치다 타츠루, 이경덕 역, 『푸코, 바르트, 레비스트로스, 라캉 쉽게 읽기』, 갈라파고스, 2010, 55쪽.

47) 알프레드 아들러에 따르면, ‘열등 콤플렉스’란 열등감을 핑계로 인생의 과제로부터 도망치는 것을 말한다. 하지만 정작 그런 상황에서 자신이 열등감을 느낀다고 솔직히 말하는 사람은 드물다. 오히려 말도 안 되게 ‘나는 다른 사람보다 뛰어나다’고 말하면서 우월감을 드러내려고 한다. 이런 ‘우월 콤플렉스’는 또 다른 열등 콤플렉스인 것이다.

“남자로 태어났으면 하고 요사이에 새삼스럽게 생각이 들어. 남자야 좀 좋아, 화가 나면 술 마시고 담배 피우고 가끔 여자와 못된 짓 할 수 있고 싫으면 싫다고 말할 수 있고 말야. (...) 난 이제 내 이야기는 못할 것만 같아. 그저 앵무새처럼 남의 이야기만 따라 하다가 말 것 같아” (『별들의 고향 下』, 249, 251쪽)

한편 경아와 혜정 역시 마찬가지로의 메커니즘을 공유한다. 경아는 중산층에 편입하기 위한 방법으로 남자와의 연애를 선택한다. 경아는 홀아비지만 부자인 만준의 딸 학예회에 참석한 자리에서 자신이 꿈꿨던 중산층의 삶을 체험한 후 결혼을 결심한다. 하지만 경아는 자신의 결심이 속물적 욕망에서 비롯한 것이 아니라 만준의 딸 명혜를 향한 모성애 때문이라고 말하며 스스로를 기만한다. 혜정의 경우는 주체적으로 행동하지 못하는 자신의 문제를 약혼과 파혼을 반복하는 방식으로 해결한다. 그녀는 “타락 좀 해보고 싶어”라고 말하면서 문오의 곁을 맴도는 한편 약혼자가 준 다이아 반지에 안심하기도 한다. 혜정은 자신의 미래를 결정해야 하는 책임을 문오를 비롯해 약혼자들에게 떠넘기고 있으면서도 자유분방하고 능력 있는 청년인 척 하는 것이다.

이처럼 인물들이 손쉽게 도착적인 쾌락에 빠질 때 이는 필연적으로 기만적인 행위가 되고, 거부감에 따른 죄의식이 나타난다. 문오가 경아의 시신을 떠맡는 것은 기만을 인식한 주체의 응답으로서 죄의식 떠안기로 볼 수 있다. 표면적으로는 문오만이 죄의식을 보여주지만 이러한 죄의식은 자기 기만에서 기인한 것으로 여성 인물들에게서도 나타난다. 여성인물들 또한 남성들을 통해 속물적 욕망을 채우는 동시에 자신의 태도에 대해 자책한다. 즉, 표면적으로 그녀들의 자책은 남성 중심의 상징 질서가 만들어낸 환상처럼 보이지만 그 근저에는 자신의 불행을 불완전한 남성들에게 떠넘긴 채 술과 미신, 안이한 낙관 혹은 안정적인 직장으로 도피했다는 자각이 자리한다. 특히 경아가 스스로 자신이 파괴될 때까지 술에 탐닉한다는 점이나 혜정이 끝내 미국으로 떠난다는 사실은 주목할 만하다.⁴⁸⁾

이처럼 『별들의 고향』에 나타난 인물들은 타락한 세계에 맞서 직접적으로

저항하거나 주체적인 욕망을 구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못한다. 하지만 현실도 파적인 이들의 모습을 단순히 미성숙한 자아로 볼 수는 없다. 이들은 자본주의 식 근대사회에 진입하면서 분열되어버린 ‘주체’의 모습을 담고 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서, 최인호의 70년대 대중소설 속 인물들은 타락한 세계를 내면화하여 기만적인 방식으로 쾌락을 추구하고 그에 따른 죄의식으로 고통스러워하는 등 파편화된 욕망 속에서 분열되어 있는 것이다. 물론 대중소설에서 자주 등장하는 연애와 일탈, 위악 등의 통속적인 소재는 실제 현실에서는 쉽게 실현될 수 있는 사건이 아니다.⁴⁹⁾ 대중소설 속 인물들이 겪는 사건은 과장되어 있고 무질서하게 왜곡된 듯 보이기 때문에 현실에 대한 리얼리티를 직접적으로 확보하지 못한다. 하지만 최인호의 대중소설을 초기 단편소설과 관련하여 일관된 논점으로 파악해보면 타락한 세계와 그 속에서 분열되어 버리는 인물은 보편적 주체의 위상을 확보하게 된다. 아울러 이러한 대중소설의 특징들은 오히려 70년대 독자 대중들과 공명하며 ‘증상’을 완성한다.

3.2. 대중소설에 나타난 대중의식의 양가성

마지막으로 기만적으로 쾌락을 구성하는 동시에 불쾌한 죄의식을 포기하지 않는 대중소설 속 인물을 중심으로 당대 대중의 무의식적 욕망을 구체적으로 확인해 보고자 한다. 이 문장은 텍스트가 당대 현실을 진단하고 반영한

48) 따라서 본고에서는 최인호 소설에서의 여성 인물들을 “소외된 근대적 남성 주체들의 죄의식을 위무해줄 수 있는 남성적 환상의 집약체”(김지혜, 앞의 논문(2013), 236쪽)로 보는 것 보다는 오히려 성차를 떠나 주체로서 다루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49) “대중소설에 등장하는 통속적인 사건들-떠돌이, 불륜, 이혼, 죽음 등은 대개 사회의 윤리에 어긋나있기 때문에 실제 현실에서는 쉽게 실현되지 못한다. 이로 인해 통속적 사건은 의미 있는 담론의 장에서 항상 소외된다. 대중소설 속의 현실은 상상계와 실재계 사이를 오가는 모호한 사건들인 것이다. 이런 속성은 대중소설이 1970년대 산업화의 현실을 날카롭게 고발하지 못하는 원인이 된다. 대중소설의 인물들에게 사회의 현실은 주체가 만족을 추구하는 상상적 공간이 되거나 주체의 행위와는 상관없는 초월적인 공간으로 대체된다.” 김성환, 앞의 논문, 15~16쪽.

의식적 결과물이라는 의미가 아니다. 오히려 꿈-분석처럼 인물들의 분열된 욕망이 양가적인 형식으로 텍스트를 구성해내는 과정을 분석함으로써 당대 대중의식에 담긴 욕망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다는 말이다.⁵⁰⁾ 앞서 『별들의 고향』에서 주체가 개인의 분열된 욕망을 지속하기 위해 기만과 죄의식을 감당하는 과정을 살펴보았다면, 여기서는 문오가 경아와 혜정에게 드러내는 모순적 태도에 주목하고자 한다.

(가) 혜정은 나의 애인이었다. (...) 그녀는 늘 감기에 걸려 두터운 마스크를 하고 다니는 듯이 보여서, 내가 그녀를 지독하게 사랑하고 있지만 그녀가 과연 나를 좋아하고 있는가 어쩐가를 알 수 없어 나는 가끔 불안하고 초조하였다.
(『별들의 고향 下』, 44쪽)

(나) 그 즈음 나는 경아를 만났다. (...) 처녀의 몸이 아니다. 나는 문득 생각하였다. 여자의 몸은 남자에 의해서 길들여지는 것으로 믿고 있는 나는 몸을 파는 여자에게서 언뜻 느끼곤 하는 그런 메스하고 때묻은 냄새는 아니지만 무언가 조금 무너져 있는 흔적, 표피를 벗긴 과일이 공기에 의해 착색되는 듯한 흔적, 그러나 차라리 그런 흔적으로 더욱 풍요로운 점액질과 같은 육체를 경아에게서 보고 있었다.
(『별들의 고향 下』, 105쪽)

(다) “나는 틀려먹은 계집애예요. 난 이미 망가졌어요. 정말이에요. 난 정말 발버둥을 쳤었어요. 나두 나두 말이에요.”
(『별들의 고향 下』, 168쪽)

(라) 갑자기 혜정이가 생각났다. 참으로 오랫동안 잊었던 이름이었다. 지난 초여름 만나고 생각조차 하지 않았던 이름이었다. 그러나 잊힐 만하면 그녀의 존재는 씹씹 씹 씹 떠오르곤 하였다.
(『별들의 고향 下』, 169쪽)

50) “욕망은 잠재적 사고와의 관계 속에서 ‘더 깊숙이 숨겨져’ 있지 않다. 욕망은 전적으로 잠재적 사고를 처리하는 기표의 메커니즘에 의해 구성되어 있으므로 좀 더 분명히 ‘표면’에 위치한다. 다시 말해서, 욕망의 유일한 자리는 ‘꿈’의 형식 속에 있다. 꿈의 진정한 주체는 꿈-작업 속에서, ‘잠재적 내용’을 공들여 만들어내는 과정 속에서 표현되는 것이다.”, 슬라보예 지젝, 앞의 책, 38쪽.

(마) 경이는 같이 살면 살수록 완전한 타인이었다. (『별들의 고향 下』, 216쪽)

(바) 나는 혜정의 머리를 잡아당겼다. 혜정의 몸이 내가 당기는 힘에 의해서 조용히 빨려 들어왔다. 나는 혜정의 입술을 빨았다. 그리고 축축한 암벽 위에 혜정을 누었다. (...) “이것이 처음이군, 혜정에게 뽀뽀해 본 것이 처음이군.”
(『별들의 고향 下』, 272쪽)

(사) 그러고는 떠났다. (...) 그녀는 내게 자기가 가지고 있던 손수건을 주었다. 아주 낫익은 학생 시절 그녀를 만나러 가면 그녀의 손목에 매어져 있던 빛깔 고운 손수건이었다. (『별들의 고향 下』, 274쪽)

(가)~(사)에 이르는 과정은 문오가 혜정과 경이를 만나고 헤어지는 과정을 시간 순서대로 나열한 것이다. 문오는 경이뿐만 아니라 혜정과도 만남과 이별을 반복한다. 특히, 문오가 이들과의 관계를 다시 맺는 계기는 언제나 성적인 문제와 연결된다. 문오가 원하는 여성은 창녀이자 처녀인데, 이러한 모순적 태도는 분열된 주체의 양가적 욕망을 부각시킨다. 문호는 자유롭게 성적 매력을 어필하는 경아에게 한 순간에 매혹당하고 그녀를 자신의 ‘본신’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실제로 경아가 창녀와 다름없다는 사실을 확인하자 그녀를 ‘완전한 타인’이라고 부르며 거부한다. 한편 문오는 순결한 혜정에게도 마찬가지로 거부감과 매혹을 동시에 느낀다. 문오는 학생시절 그녀와의 입맞춤에 실패한 이후로 보수적인 성격의 혜정과 언제나 거리를 둔 채 지낸다. 혜정의 완고함은 문오가 그녀를 적극적으로 욕망할 수 없게 만들기 때문이다. 하지만 문오는 혜정의 순결한 처녀성을 얻고 난 후에도 그녀를 붙잡지 않고 떠나보낸다. 이러한 모습은 문제 자체가 주체인 문오에게 있음을 말해준다. 새롭게 재편된 70년대 사회에서 주체는 서구식 가치관이 가져다준 ‘성적 자유’와 전통적 가치관이 보장해주던 ‘순결성’ 중 무엇을 더 욕망하는지 선택하지 못하는 주저함을 보이는 것이다. 성적 자유는 양적인 쾌락을 보장하되 타락이 주는 불쾌를 동반하고, 순결한 처녀는 성스럽지만 완고함

으로 좌절감을 동반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구도는 『내 마음의 풍차』(1974)의 주인공인 이영후의 태도에도 직접적으로 드러나 있다.⁵¹⁾

우리 둘은 갑자기 무지막지하게 친해진 기분이었다는 거야. 그 나이에 애 서넛 배어 본 여자 같은 품을 잡고 있는 그애나, 실상 썩어빠지고 아비한 피가 흐르고 있는 나는 이가 잘 맞아들어가는 자물쇠나 열쇠 같은 느낌이 들었다는 것이지.
(『내 마음의 풍차』, 179쪽)⁵²⁾

명숙이 처녀라는 사실이 날 놀라게 했던 것은 사실이었다. (...) 명숙이 점점 다정하게 굴기 시작할 때부터 자라고 있던, 반사적으로 통겨 나가려는 용수철과 같은 욕망이 점점 구체화되어 내가 그 다방 문 앞에 섰을 때 불쑥 떠오른 느낌이었던 것이다.
(『내 마음의 풍차』, 211쪽)

영후는 명숙이 창녀이길 원하면서 동시에 처녀이길 원한다. 때문에 영후는 동일한 대상에게 갑작스럽게 폭력성을 내보이기도 하고 무한한 사랑을 표현하기도 한다. 그의 이러한 태도는 동생인 영민에게도 마찬가지로 나타난다. 영민은 자폐아에 가까운 순수한 존재로서 영후는 그런 동생의 내면 세계를 동경하기도 하지만 무참히 짓밟고 싶어한다. 영후는 동생을 이끌고 외출을 나가 새로운 세계를 경험케 해주고 홀로 설 수 있게 돕지만 동시에 그것이 타락이라고 생각하기도 한다. 영후는 사회에 적응해나가는 자신의 모습을 타락한 방식으로 여기고 환멸을 느끼는 동시에 새로운 세계에 적응하

51) 『내 마음의 풍차』의 이영후 또한 『별들의 고향』의 인물들과 다르지 않아 보인다. 영후는 처의 자식으로서 서자라는 존재적 열등함과 어머니로부터 방치된 소외감을 극복하는 방법으로 도둑질을 하거나, 아버지의 세계 속에서 점잖은 체 '모범아들' 행세를 하는 것으로 자신의 욕망을 구성하려 한다. 영후의 이러한 노력들은 뚜렷한 목적의식을 가지고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잘 할 수 있는 것이어서 선택한 것일 뿐이며, 명숙과 영민을 타락시키려는 행동들 또한 도착적 쾌락을 향한 기만적인 행위일 뿐이다. 결국 영후가 다시 어머니의 세계로 돌아가는 것은 타락한 세계에서 타락한 방법을 통해 기만적으로 행동했던 자신에 대한 반성이자 또 다른 도피라고 할 수 있다.

52) 최인호, 『내 마음의 풍차』, 여백, 1999.

지 못한 채 순진하게 이상만을 좇는 모습을 능력 없는 나약함으로 비난하는 모순적인 태도를 보인다. 다시 말해서, 최인호의 대중소설 속 인물들은 성적인 측면뿐 아니라 정치적·사회적으로도 양가적인 태도를 드러내는 것이다. 『별들의 고향』의 문오가 미술계에서 인정받고 성공적으로 사회에 안착했으면서도 “늘 가슴 한 구석이 텅 비어 있는 것”을 느끼고 서울에서의 생활에 다시금 환멸을 드러내는 것 또한 마찬가지다.

그렇다면 소설 속 주체들의 태도는 과연 당시의 대중들의 무의식적 욕망과 어떻게 공명하고 있는가를 살펴 볼 필요가 있다. 실제로 당시의 청년문화가 보여준 성격에 대해 살펴보면, “당시 대학생들의 의식과 취향은 공적 담론장에서 드러난 것처럼 결코 균일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⁵³⁾

대학생들이 품을 잡기 위해서 장식품처럼 활용한 이 책들은 (...) 대학생들의 지적 능력과 취향, 시간적 여유 등을 사람들 앞에 의도적으로 과시할 수 있는 장식품이다. (...) 대학생들이 송창식, 윤형주, 이장희 등이 부른 한국의 포크송을 환영하는 행태는, 이른 바 ‘뽕판’으로 보급되는 외국 팝송을 듣는 감수성을 과시하는 의식과 건전한 ‘생산’에 종사하는 사람들에게 대한 경멸감을 숨기고 있다. 많은 사람들이 청년문화의 낭만적인 풍속에 불쾌함과 우려를 표시할 수밖에 없었던 것도 당연했다.

대학생들이 입는 청바지, 그들이 들고 다니는 책, 그들이 듣던 음악, 그들이 마시는 술, 그들이 가는 장소가 대학생들만의 전유물이 아니라, 사회의 다른 계층과 집단으로 확산되는 과정과 궤를 같이 하고 있다. (...) 아무리 일부 대학생들과 지식인들이 청년문화의 진정성과 의미에 대해 거부감을 가졌다 해도, 청년들의 풍속과 스타일들은 하층 계급들이 도달하고 싶었던 삶 혹은 적어도 그들이 타인들에게 내보이고 싶은 삶에 대한 광범위한 욕망을 건드리고 있었던 것이다.⁵⁴⁾

53) 1970년대 청년문화에 대한 시대적 자료는 송은영(앞의 논문, 423~439쪽)의 논의를 참고로 했음을 밝힌다.

54) 송은영, 앞의 논문, 433, 437쪽.

당시의 청년 주체는 지배이데올로기의 강압을 조롱하고 자유와 해방을 추구하는 저항적 주체이기도 했지만, 동시에 소비문화에 잠식된 쾌락적 주체이기도 했다. 당시 청년들에게 장발 패션이나 외국 문학작품은 기의가 아닌 기표의 역할을 담당한다. 여유롭게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계층임을 노골적으로 표출해주는 문화상품들을 '구별짓기'의 기표로 삼았다는 사실 자체는 그들이 이러한 소비문화에 매혹되어 있었음을 반증한다. 또한 이러한 청년문화는 점차 유행이 되어 대중의식 전반으로 확산되었다. 한편 청년문화에 대한 언론보도 중 소비문화에 대해서 청년집단이 “그것이 우리에게 존재하지 않는다는 강경한 부정론”을 펼쳤던 것을 보면 그들 스스로도 자신들이 근대적 소비문화에 매혹되어 있다는 사실에 대해 거부감을 갖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즉, ‘대학가 스트리킹’, ‘장발’, ‘청바지’, ‘포크송’ 등의 청년문화의 기표에는 자유를 향한 대중의 저항성뿐 아니라 도착적 쾌락을 향한 양가적인 욕망이 분열된 상태로 담겨 있는 것이다. 따라서 최인호 텍스트의 주체의 모순적 태도는 당대 대중의 양가적인 의식과 맞닿아 있다고 볼 수 있다.

이처럼 최인호의 초기 단편소설이 도달한 지점인 분열된 주체의 발견은 자본주의식 근대에 대해 매혹과 거부감을 양가적으로 느꼈던 대중과 만나면서 기만적 쾌락과 저항적 죄의식을 동시에 담아내는 70년대 대중소설로 나타난다. 따라서 최인호의 『별들의 고향』은 그 자체로 ‘증상’이 된다. 우리는 최인호의 텍스트를 통해 당시 대중들 역시 현실의 모순을 함께 극복할만한 연대의 가능성을 탐색하는 대신 기만적으로 자신의 쾌락만을 충족하는 데 만족하고 동시에 자신의 타락 앞에서 죄의식을 느꼈음을 짐작할 수 있다. 특히 최인호는 미학적으로나 현실적으로 완벽한 질서, 완벽한 주체가 아닌 분열된 주체를 통해 당시 대중의 의식을 투명하게 담아냈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4. 결론

김지혜는 “최인호의 장편소설에서 반복되는 도피의 욕망은 개인주의와 물신주의적 욕망과 결합함으로써 부정적 현실에 대한 방관으로 흐르고 있으며, 타자에 대한 연민과 죄책감, 속화된 욕망에 대한 반성 역시 도시적 삶의 환멸을 드러내는 상투적인 제스처로 반복되면서 통속적으로 변모”⁵⁵⁾한다고 말하며 최인호의 통속적 대중소설의 한계를 지적한다. 한편 이러한 평가는 온당하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앞서 언급했듯이 대중문학의 가치를 대중의식의 지형도를 그려보는 데서 찾을 수 있다면, 『별들의 고향』과 『내 마음의 풍차』에 나타난 통속성과 저급함 또한 이 시대 대중들의 저급한 의식을 투명하게 반영한 결과임을 주장하는 것으로 텍스트의 가치를 확보할 수 있다.⁵⁶⁾ 대중소설을 증상으로 바라본다는 것은 대중소설이 단순히 현실도피나 감정 소모의 수단에 머물지 않고 그 안에 대중의 무의식이나 그 시대의 무의식을 담아내는 텍스트로서 존재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이때의 대중의식은 텍스트와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것이 아니며 그 사이에는 작가의 개별성이 개입한다. 새로운 근대사회에서 분열되고 타락한 방식으로 존재하는 주체를 발견한 최인호는 대중의 감수성을 분열된 주체에 담아 문학적 굴절, 즉 증상을 만들어 낸 것이다.

본고는 이를 논증하기 위해 먼저, ‘타락한 세계에 대한 주체의 태도’를 중심으로 초기 단편소설과 장편소설의 차이점을 확인해보았다. 1960년대 중후반부터 1970년대 초반까지의 초기 단편소설에는 주체 역시 분열되어 있으며 타락해버렸다는 사실이 강조되어 있으며, 이는 최인호가 대중소설의 가치를

55) 김지혜, 앞의 논문(2014), 268쪽.

56) 송은영은 “1970년대 한국 사회를 조망하는 연구들은 주로 유신정권의 군화발 아래 짓밟힌 정치와 참혹한 노동현실을 파고들지만, 그러한 방법만으로는 평범한 사람들의 존재 양상과 사회적 갈등의 내부를 밝히기는 어렵다”고 말한다. 이는 70년대 리얼리즘소설을 통해서 ‘민중’이라는 이념적 주체의 모습은 파악하는 작업은 가능하지만 ‘개인으로서의 대중’의 존재 양상을 파악하기는 어렵다는 말이다. 송은영, 앞의 논문, 429쪽.

선택할 수 있었던 조건이 된다. 『별들의 고향』의 문오를 비롯한 인물들은 이미 분열되어 있는 자신의 양가적 욕망을 기반으로 충족시키는 인물로 등장한다. 이들은 어느 순간부터 통합되지 않는 자신들의 파편적 욕망 그 자체에 집중하는 것으로 역사적 주체로서의 책임을 외면하려 한다. 주목할 점은 이러한 텍스트의 모순적 태도가 당대의 대중의식과 연결된다는 사실이다. 당시의 청년들은 부조리한 사회에 저항하는 투사이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속물적인 주체로 분열되어 있었다. 텍스트와 대중의식 사이의 이러한 상동성은 소설에 대한 엄청난 호응을 이끌어내고 대중소설, 상업소설이란 영역을 만들어낸다. 결국 최인호의 대중소설은 초기 모더니즘소설이 도착한 지점과 당대의 대중의식이 만나는 하나의 매듭점이자 증상이다.

본고는 주체의 문제를 바탕으로 최인호의 초기 문학 여정을 살펴보았지만 최인호의 대중소설들을 충분히 다루지 못한 아쉬움이 있다. 1970년대 현실을 배경으로 한 초기 대중소설뿐만 아니라 역사와 종교의 세계로 이행하는 과정 또한 충분히 논의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기에 이는 추후 과제로 보충하고자 한다.

참고문헌

- 최인호, 『최인호 중단편 소설전집 1,2,3』, 문학동네, 2002.
 ———, 『별들의 고향』, 샘터사, 1994.
 ———, 『내 마음의 풍차』, 여백, 1999.
- 박상순, 「탈주체적 등장인물 연구-최인호와 김영하의 단편소설을 중심으로」, 『한국근대문학연구』 15호, 한국근대문학회, 2007: 73~99쪽.
- 권영민, 『한국현대문학사』 2, 민음사, 2002.
- 김미정, 「최인호 신문소설에 나타난 욕망 연구」, 이화여대 석사학위논문, 2005.
- 김상환·홍준기 편, 『라캉의 재탄생』, 창비, 2002.
- 김성환, 「1970년대 대중소설에 나타난 욕망 구조 연구」, 서울대 박사학위논문, 2009.

- 김인경, 『최인호 소설에 나타난 모더니즘과 저항의 서사』, 『국제어문』 39집, 국제어문학회, 2007: 289~314쪽.
- 김지혜, 『1970년대 대중소설의 죄의식 연구』, 『현대소설연구』 52호, 한국현대소설학회, 2013: 223~249쪽.
- , 『조숙과 만숙의 경계-1970년대 최인호 소설을 중심으로』, 『어문론집』 59호, 중앙어문학회, 2014: 247~272쪽.
- 김진기, 『최인호 소설의 정치성 연구』, 『어문론집』 61호, 중앙어문학회, 2015: 383~419쪽.
- 김 현, 『문학과 유토피아』 전집4, 문학과지성사, 1992.
- 김현주, 『1970년대 대중소설 연구』, 연세대 박사학위논문, 2003.
- 김형중, 『Che Vuoi, Jacques Zizek?: 현대 정신분석학과 한국 문학비평』, 『인문학연구』 44집, 조선대학교 인문학연구원, 2012: 167~191쪽.
- 나병철, 『최인호론-비동일성의 시선과 낯설게 하기』, 『현대문학의연구』 11호, 한국현대문학연구학회, 1998: 165~199쪽.
- 노대원, 『최인호 초기 단편소설의 카니발적 특성 연구』, 서강대 석사학위논문, 2009.
- 민족문학사연구소 편, 『1960년대 문학연구』, 깊은샘, 1998.
- , 『1970년대 문학연구』, 소명출판, 2000.
- 박필현, 『“꿈의 70년대”의 청춘, 그 애도와 위안의 서사-최인호의 『별들의 고향』을 중심으로』, 『현대소설연구』 56호, 한국현대소설학회, 2014: 209~233쪽.
- 송은영, 『대중문화 현상으로서의 최인호 소설-1970년대 청년문화/문학의 스타일과 소비풍속』, 『상허학보』 15호, 상허학회, 2005: 419~443쪽.
- 심재욱, 『최인호 단편소설 『타인의 방』 서사구조 연구』, 『우리문학연구』 45집, 우리문학회, 2015: 287~311쪽.
- 슬라보예 지젝, 이수련 역, 『이데올로기의 숭고한 대상』, 새물결, 2013.
- 안낙일, 『1970년대 대중소설의 두 가지 서사 전략』, 『한국문학이론과 비평』, 한국문학이론과 비평학회, 2000: 270~299쪽.
- 우치다 타츠루, 이경덕 역, 『푸코, 바르트, 레비스트로스, 라캉 쉽게 읽기』, 갈라파고스, 2010.
- 이평전, 『현대소설에 나타난 도시 공간의 위상학 연구-최인호 소설을 중심으로』, 『한국문학이론과 비평』 제56집, 한국문학이론과 비평학회, 2002: 183~202쪽.
- 조남현, 『한국현대문학사상 탐구』, 문학동네, 2001.

A study on a popular novels as a symptom in the 1970s and Choi, In-ho Literature

Sim, Jae-uk

This study summarized the early literature of Choi In-ho literature around the transition to the 70s in the 1960s, and Symptoms concept aims to illuminate the differential value of popular novels appeared in the 1970s.

True meaning of Choi In-ho's earlier text can be called 'discovery of the split Subject by resistance and fascination against the fallen world.' The split subject appears the attitudes of resistance and Submission are key through the whole literature of Choi In-ho. In addition, The fact that his characters are splitted aspects of establishing a self World is a new starting point in the development of literature after Choi In-ho.

Starting in 1972, the Characters show a morbid state that to continue the splitted desires instead of attempting to fight fallen world. And a fallen world to give pleasure to split subject. 70's Popular fictional characters seem to be contradictory as the ambivalent attitude, at the time the public resonates with the popular novels and to complete the 'symptoms'. In fact, at the time of the young subject, but mocking the coercion of the dominant ideology and resistant subjects also pursuing freedom and liberation, at the same time was an encroachment on the subject hedonic consumption culture. 1970 popular novels of Choi In-ho is a reproduction of reality but a superficial and distorted aspect reveals the unconscious desires of the public. Thus, his 1970 popular novel has a differential value as a symptom.

Key words Popular-novels, Fallen World, Split subject, Symptoms, Perversion, Deception, Ambivalence

본 논문은 2015년 5월 10일에 투고 완료되어, 2015년 6월 8일 심사 완료하고,
2015년 6월 17일 게재를 확정하였음.